



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7월 문송면 추모 및 산재사망 합동추모 주기를 기점으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입법 발의를 전개할 계획이다. 이어 8월 말부터 10월 사이 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,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겐 면담요청과 공동입법발의 요구를 할 예정이다.

또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'산재 및 재난참사 모의법정'과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단막극을 준비한다.



**변백선 기자** n7349794@naver.com